"상품권 드려요" 택배사칭 스미싱 '주의'

올 1~8월 17만여건 발생…재난지원금 문자도 기승 "출처 불분명한 URL·전화번호 클릭하지 말아야"

"추석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. 확인 바랍니다."

"상품 거래번호는 틀려서 보낼수 없 습니다. 앱 다운로드 다시 확인해주세

"○○은행, 9월 귀하는 재난지원금 대출신청 대상이니 확인 부탁드립니

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,

국민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(보이 스피싱)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 한 주의가 요구된다.

스미싱은 문자메시지 (SMS)와 피싱 (Phishing)의 합성어로, 악성 앱 주소 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(SMS)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 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· 개 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. 보이

스피싱, 전자상거래 사기, 기타 다양한 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(URL)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된다.

1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다"고 강조했다. 1월부터 8월까지 스미싱 신고(접수)ㆍ 차단 건수는 18만4,002건으로, 이중 추석 명절 기간 선물 배송 등에 악용될 수 있는 택배 사칭 스미싱 유형은 93% (17만1,391건)를 차지했다.

공공기관 사칭은 9,814건, 지인 사칭 2,773건, 기타 24건 등이었다.

금감원 관계자는 "스미싱 사기 피해 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 조 회, 명절 인사, 모바일 상품권・승차권・ 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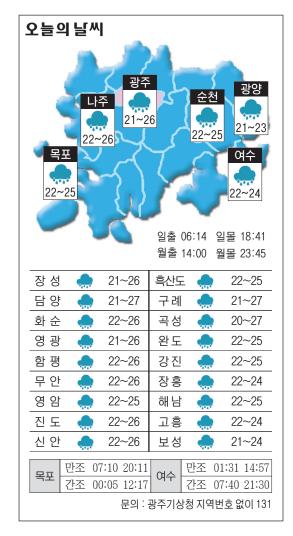
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아야 한

또,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 고,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오픈마 켓을 통해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

금감원은 특히 본인인증이나 재난지 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・금융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

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스미싱으로 인한 국민 피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미싱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 으로 실시할 계획이다.

정부 관계자는 "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(ECRM)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"며 "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 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 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"고 말했다.



광주·전남 내일까지 비…최대 80mm

15일까지 광주·전남에는 비가 내리겠다.

제14호 태풍 찬투의 간접 영향으로 다량의 수증기 를 포함한 강한 남동풍이 불어드는 전남남해안에는 14일과 15일 시간당 30~50mm의 강한 비와 함께 총 12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, 돌풍과 천둥·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.

전남남해안은 바람이 시속 35~60km, 최대순간풍 속 7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.

광주·전남에도 15일까지 최대 80mm의 비가 내리 /김민빈 기자

'원아 상습 학대'교사, 항소심서 감형

한두 살배기 원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1심에 서 실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 형받았다.

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 대 가중처벌)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 고받은 전직 보육교사 A씨(49·여)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.

재판부는 "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, 일정 기 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자세를 보인 점 등을 종 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"고 지적

A씨는 지난해 5월28일부터 7월23일 사이 자신이 일하는 광주 모 어린이집에서 만 1~2세 아동 3명을 13차례에 걸쳐 신체·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 판에 넘겨졌다. /최환준 기자



추석 맞이 장보기 추석을 맞아 13일 오전 광주 양동시장에서 열린 전통 장보기행사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원과 취약계층 주민들이 밤, 대추 등 제수용품등을 구입하고 있다. /김태규 기자

택배노조 '배송구역 몰수' 갑질 의혹

대리점 사측·관계자 등 강요죄로 고소

광주한 운송업체 노동조합이 노조를 이 '노조를 탈퇴했으니 지금까지 해왔 탈퇴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에게 갑질 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.

1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말 택배기사 A씨가 배송구역을 강제 로 변경하는 부당한 일을 당했으니 강 요죄로 처벌해 달라며 택배 대리점 사 측과 노조 관계자 등 3명을 고소했다.

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'노조 측의 갑질'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.

A씨는 "올해 6월, 노조 파업에 동참 했다가 수익이 없으면 가족들까지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해, 파업 참여를 거부하 자 노조를 탈퇴하고 일하라는 답변을 받았다"고 밝혔다.

이어 "이후 노조를 탈퇴하자 조합원

오늘 실질심사엔 불참

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, 업

체선정 과정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

수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(61) 전 5·18

광주경찰청 수사본부(반부패경제범

죄수사대)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등혐

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

던 배송구역을 반납하라'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고, 실제 배송구역이 변경 됐다"고 했다.

배송구역이 변경돼 수익이 줄어든 A 씨는 변경의 근거라는 단체협약을 확인 하려 했으나, 협약을 맺은 적이 없다는 사측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.

이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노조 측은 '적반하장' 이라는 입장이다.

해당 사업장 노조원이기도 한 민주노 총 택배노조 호남지부 사무국장은 "해 당 사업장은 노조 탈퇴 시 사측이 해고 할 수 있는 '유니언숍' 형태의 노조가 운영되는 곳이다"고 밝혔다.

과거 해당 사업장이 운영상 어려움에

그러나 문씨는 경찰의 영장 신청 단

계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

심사)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

혔다. 해외 도피 이력과 동종전과가 있

는 문씨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

단해 구속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포기

문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

청구했다고 밝혔다.

한 것으로 추정된다.

하고 탈퇴하자, 노조와의 관계를 의식 한 사측이 A씨에 대한 해고 입장을 밝 히자 오히려 노조가 해고를 막아줬다" 며 "다만 사측이 좋은 배송구역을 노조 탈퇴한 상황에서 계속 유지해 줄 수 없

부닥쳤을 당시 노조원들이 회사에 낸

보증금을 포기하는 대신 '유니언숍' 운

영을 사측과 합의했다는 것이 노조 측

노조 측은 "A씨가 파업 참여를 거부

의 설명이다.

어 변경한 것으로 안다"고 밝혔다. 이어 "A씨가 자신의 배송구역을 가 지고 다른 택배 대리점으로 소속을 변 경할 수 있도록 배려까지 했는데도, 강 요죄로 사측과 노조 관계자를 고발했 다"며 "이는 명예훼손이고, 무고에 해 당한다고 보고 대응책을 고심할 예정이

/최환준 기자

'붕괴참사 브로커' 문흥식 구속영장 법 101호 법정에서 열리며, 문씨가 실 질 심사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

발부 여부를 결정한다.

다"고 밝혔다.

전날 조사에서 문씨의 혐의 인정 여 부에 대해서도 경찰은 '피의사실공표' 에 해당할 수 있다며 비공개 방침을 밝

서면으로 구속영장을 심리해 구속영장

문씨는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 철 거 공사 등을 따낸 업체들로부터 공범 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업체선 정을 알선한 혐의(변호사법 위반 등) 를 받고 있다. /최환준 기자





